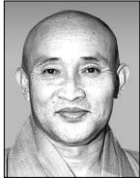




국대인민 기원대법회 법문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27일 서울 도선사 호국참회원 3층 대법당에서 열리는 국대인민 기원대법회에서 법문을 했다.



은정장학금 증서 수여식
은정장학재단 이사장 정대 스님은 11월 1일 제2회 은정장학금, 학술연구지원, 생활격려금 증서수여식을 갖는다. (02515-9351)



문화재 환경정화운동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장 현성 스님은 26일 서울 탑골공원 및 종묘에서 문화재 환경정화운동을 펼쳤다.



주한 상무관 초청 템플스테이
김천 직지사 주지 자광 스님은 31일 직지사 대웅전에서 주한 외국대사관 상무관 초청 템플스테이를 병행한다.



일주문



'불교의 과학과 철학' 세미나
고려대장경연구소장 총림 스님은 31일 오전 10시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에서 '불교의 과학과 철학'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연다.



천안경찰서 경승 수계법회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회장 법혜 스님은 20일 천안경찰서 경승실에서 제1회 천안경찰서 수계법회를 병행했다.



길상사 대웅전 상량법회 동행
부산 길상사 주지 자인 스님은 25일 백옥 부처님 천불을 봉안하게 될 길상사 대웅전 상량 법회를 병행했다.



봉은사서 혼인준비 교실
불교여성개발원 이인자 원장은 11월 1일, 8일, 15일 오후 6시~8시 서울 봉은사에서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제2차 혼인준비 교실을 연다.



디지털 전자도서관 개관식
청담정보통신고등학교 이근우 교장은 28일 인터넷 방송국과 디지털 전자 도서관 개관식을 거행했다.



경찰행정학과 40돌 세미나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이운근 주임교수는 24일 서울 삼성생명빌딩에서 경찰행정학과 창립 40주년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 출연
진각복지재단 장지현 사무처장은 16일부터 6개월간 불교방송 프로그램 '무명을 밝히고'에 출연, 한국폐사지에 대한 설명을 한다.

“평생받은 은덕 세상에 회향”

일흔살 늦깎이 지연 스님



고종의 역사적인 정통성과 현실적 합리성, 언행 일치 등을 요구하는 대승계율 등이 마음에 와 닿아 태고종으로 출가하게 됐다"며 "만 50세 이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스님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늦게나마 사회에 봉사해야겠다는 서원이 말년에 출가를 결심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10월 22일 태고종 선암사에서 열린 합동독도수계산립 회향식 현장에서 만난 대한언론문화연구원장 박현태(70·사진) 씨는 지연(志淵)이라는 법명을 받은 뒤 소감을 이렇게 피력했다.

힘들었다는 지연스님은 “평소 소심한 성격으로 이렇듯 때는 건강이 좋지 않았으나 기자가 되면서 담대해지고 술을 마시지 않고 소식한 것이 건강을 유지한 비결”이라며 “부처님 법을 전하고 생활불교를 실천하는데 지금의 건강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지연스님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봉사와 포교가 수행의 첫 목적”

한국일보 편집국장 겸 11대 국회의원, 문화공보부 차관, KBS 사장, 수원대 법정대학장, 동명정보대 총장 등 화려한 이력은 이제 그에게는 펼쳐 버려야 할 세속의 직함이 됐다.

4명의 딸 가운데 개신교 신자인 2명의 반대를 무릅쓰고 출가를 결행한 지연스님은 “대학 다닐 때부터 종교에 대한 관심을 가졌는데, 불교는 그 뜻이 깊고 요묘해 평생동안 마음 언저리에 남아 있었다”며 “일을 것도 더 이상 바랄 것도 없다는 생각에 출가의 길을 택했다”고 말했다.

태고종과의 인연에 대해서는 “태

“절을 찾아오는 신도님들과 인생 상담과 기도를 하면서 평생 동안 내가 받은 은덕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면서 “신도님들이 호적초본을 떼어 달라고 해도 기꺼이 응하는 등 봉사와 포교에 전념하는 수행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1933년생으로 만 70세에 구도의 길로 들어선 지연스님은 내년 3~4월 경 열리는 합동연수를 거친 뒤 정식 승려증을 받게 되며, 내년 6월쯤 남양주 경춘도로변에 문을 여는 백련사의 주지를 맡을 예정이다. 이번 수계산립에서 사미가 됐다.

순천=주용직 광주지사장

여성 포교사 활동 활성화 추진

조계종 포교사단 중앙단장 양성홍 포교사

제3대 조계종 포교사단 중앙단장에 현 부단장인 양성홍(58·사진) 포교사가 선출됐다.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김대중)은 10월 21일 제5차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내년 1월부터 2년 동안 포교사단을 이끌어갈 새 단장에 참석자 21명(정원 30명) 만장일치로 양성홍 포교사를 뽑았다.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15개로 나뉘어져 있는 팀 활동의 정착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양 단장은 “포교사라면 어느 곳에서도 달려가 포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기본 교육, 전문 교육, 환경 교육, 호스피스 교육 등 교육제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1998년 포교사 고시에 합격한 이후 포교사단 내에서 팀장과 부단장을 거쳐 중앙단장 자리에 오른 양 신임단장은 “침체된 여성 포교사들의 활동을 활성화 하겠다”는 포부를 제일 먼저 밝혔다. 그는 “다른 종교계에 비해 불교계는 어린이, 청소년 포교가 열악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는다”며 “새싹 불자들이 기르는 데에는 특히 여성 포교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15개로 나뉘어져 있는 팀 활동의 정착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양 단장은 “포교사라면 어느 곳에서도 달려가 포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기본 교육, 전문 교육, 환경 교육, 호스피스 교육 등 교육제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6개월 8개월 실천 운동본부 개설, 지역 사찰과 연대한 지역 포교 활성화, 홈페이지 개편을 통한 인터넷 포교 활성화 등의 의지를 밝혔다. 이와함께 포교회관 건립과 관련해서도 “재정 확보가 가장 시급하지만 2천여 포교사들의 화합과 발심만 있다면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권형진 기자 jimny@buddhapia.com

지역교화 유공 의천스님 경찰청장 감사장 받아



는 한편, 안양경찰서 경승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 86년부터 안양교도소 종교위원,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종교위원 등을 맡고 있다.

이동혁 기자 tonylee7@buddhapia.com

안양 도광사 주지 의천 스님(사진)이 지난 21일 경찰의 날을 맞아 지역 교화 활동과 경찰 포교 등의 공로로 경찰청장 감사장을 받았다. 의천 스님은 그간 안양 지역에서 사회복지활동을 벌이



문광부, 문화예술계 유공자 선정

박범훈 교수(중앙대 부총장·사진), 판 소리 명창 김영일씨, 국민가수 조용필씨, 국악인 황병기 교수(이화여대) 등 불자예술인들이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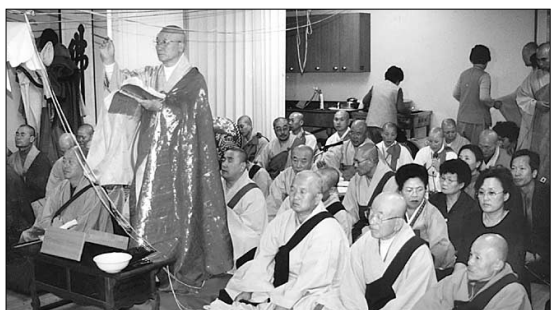
월 20일 문화관광부가 ‘문화의 날’을 맞아 정한 올해 문화예술계 유공자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문화예술상=박범훈 교수(음악), 이길녀 가천문화재단 대표 △문화훈장 은관=황병기 교수, 조용필 △화관=김영일

북한 미술작품 김기만 특별전



평불협 경북·대구본부(공동대표 장적)는 지난 20일 창립 1주년 기념 북한미술작품전 김기만(운보 김기창 화백 동생) 특별전을 열었다. 현대불교신문, 대구불교방송, 대구 문화방송이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평불협 회장 법타스님 등 사부대중 50여 명이 참가했다.

본원종 본원사 개원법회 동행



본원종 서울 본원사 주지 명근는 23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본원사 대웅전에서 개원법회를 병행했다. 본원종 중앙총회의장 대운, 재무부장 대황스님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한 법회에서 양평 용현사 주지 청봉 스님은 “사부대중이 한마음으로 화합하자”고 병문했다.

‘미륵사상과 고유사상’ 세미나



(사)미륵종교협의회는 24일 인천 송도비치호텔에서 제6회 미륵사상과 고유사상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교주 도불도주의 개회사, 안상수 인천광역시장의 축사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032832-0326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우리절 정기기도 · 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일요법회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자녀 및 입시기도 목련사랑법회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특별대비주기도회
- 매월셋째 화요일 오후 2시 ~ 4시 부산 동선회법회
- 매월 마지막 토요일 밤 10시 ~ 새벽 3시 대비주 철야기도
- 곤지암터미널 - 우리절 셔틀버스 운영

곤지암 우리절

천도재 기도도량 · 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우리절은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대비주 기도도량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장장 5시간에 걸쳐 논스톱으로 올리는 대비주 기도에 불자님들의 모든 바램을 한번 멋지게 걸어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절은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 선광조사 영가님들을 천도하는 역시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천도재 기도도량입니다. 주[대비주 = 신묘장구대라니]

◆ 교통편

1. 강변역 → 광주 → 곤지암 1113-1
2. 잠실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1
3. 양재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2

[Ⅲ-1030] 기도봉행

<제3차 1030일 지장천도기도>

○ 입재 : 2003년 11월 2일 ○ 회향 : 2006년 8월 27일
입재법문: 목암광현 큰스님(봉선사 기획국장·홍통사 주지)

고암대종사 104주년 탄신제

○ 탄신제 : 2003년 10월 29일(10. 5) 10시

지장보살후불탱화 점안법회

○ 2003년 10월 29일(10. 5) 10시